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2년
2023년 2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7년 제 279 호

종조 탄신 116주년 종령 법어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자



종령 법공 대종사

오늘은 정통불교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리우고 즉신성불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고자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께서 탄신하신지 1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께서는 시시불공, 처처불공법으로 생활시불법 불법시생활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생활불교 방안을 세움으로서 교상을 확립하시고 종단화합 그리고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염원으로 후학 스승들에게 일곱 가지 정법유훈을 전하신바 '첫째, 종단의 화합에 노력할 것. 둘째, 공금, 단시금은 진리에 계합되게 사용할 것. 셋째, 오계를 결범하지 말 것. 넷째, 정법준수와 교법을 고치지 말 것. 다섯째 전당건설은 사길성법으로 시행할 것. 여섯째, 혈맥계승은 종령에서 종령으로 할 것.

일곱째, 삼밀수행과 육행실전은 종단의 덕목이니 명심할 것'입니다. 총지중은 원정 대성사님의 유훈을 받들어 스승과 교도가 합심과 단결로써 수많은 간난신고를 헤쳐 오면서 흔들림 없는 종지로 노력한 결과 오늘의 우리 총지중이 있게 되었습니다.

승단의 화합은 승단의 생명입니다. 승단과 교도 전체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교화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승단의 발전은 개 개인의 수행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수행자는 항상 자신을 둘러보는 자세와 흐트러짐이 없는 계행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원정 대성사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총지중의 종도들은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가치관 혼란의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스승과 교도가 화합 단결, 하나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총지중이 길이 융창하게 하여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한한 복덕이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총기 52년 1월 29일
종령 법공 합장

종조 원정 대성사 제116주년 탄신대재 봉행

1월 29일 본산 원정기념관 비롯 전국 사원서 봉축



불교총지중 종조 원정 대성사 제 116주년 탄신대재가 1월 29일 오후 2시 본산 원정기념관과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원정 대성사는 반세기 전 밀엄국토 건설과 밀교중흥에 대한 대비원으로 세상에 진신을 전하는 문이자 교화의 등불이 되는 불교총지중을 창종했다.

본산 법회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서울 경인교구 스승과 교도, 유가족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면으로 이어짐

총기 52년 신년하례법회 및 기로진원식 봉행

1월 12일 본산 총지사, 교화 발전에 정진하는 새해로



총기 52년 계묘년 신년하례법회 및 기로진원식이 지난 1월 12일 오후 1시 본산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는 종령 법공 예하를 비롯한 전국 사원 스승과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하례인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종령 법공 예하는 현화와 훈향정공에 이어 설교한 법어를 통해 "마치 화살을 쏜 화살과 같이 무상한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다."면서 "교도 여러분들 모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참회와 반성을 통해 새해에는 더욱더 건실한 마음가짐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 또한 인사말에서 승단과 교도가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새로운 교화발전을 이룩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뜻을 밝혔다.

2면으로 이어짐

종/조/법/어

우리는 크게 살자. 사람은 목표에 따라 행동이 다르다. 자기만을 위하는 자, 그 행동이 작을 것이요, 나라나 사회를 위하는 자, 그 행동이 클 것이다.

지 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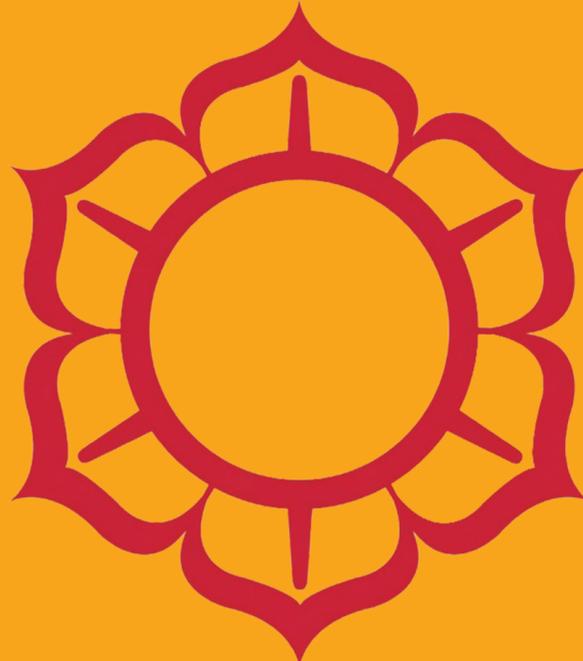
2면 총기 52년 기로진원식 화보
5면 이달의 법문 / 도우 정사
6면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16화)
8면 밀교 인물사 / 정성준 교수

총기 52년 49일 상반기 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2년 2월 19일(일)~4월 8일(토)

장소 _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총기 52년 기로진원식



부산경남교구 스승들이 교구 소속 스승들의 기로진원을 축하하며, 종령 범공 예하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위>정인화 전수와 원당 정사가 종령 범공 예하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
<왼>동참 사부대중으로부터 축하와 감사의 꽃다발을 받은 두 스승이 활짝 웃고 있다.

종조 탄신대재

부산 정각사, 대전 만보사 등 전국 30여 사원에서도 대재를 올리고 대성사의 탄신을 봉축했다. 또 전국에서는 대성사의 탄생과 행장을 소개하며 밀교의 법을 몸으로 체득하고, 불공의 길을 열어 펼친 대성사의 생전 가르침을 가슴에 되새겼다.

재무부장 승원 정사의 사회로 총무부장 록경 정사의 집공으로 진행된 본산 법회는 훈향정공과 헌화, 고유문, 종령 법어, 통리원장 봉행사, 교도 발원문, 마니합창단의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되었다.

종령 범공 예하는 법어를 통해 “총지종은 원정 대성사님의 유훈을 받들어 스승과 교도가 합심과 단결로써 수많은 간난신고를 헤쳐 오면서 흔들림 없는 종지로 노력한 결과 오늘의 우리 총지종이 있게 되었다.”고 설교하고, “총지종의 종도들은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가치관 혼란의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고 유시했다.

봉행사에서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종조님의 사상과 교상의 연구에 매진하여 종조님께서 제창하신 재생의세의 정신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총지종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오맹 정진할 것을 다짐하자.”고 피력했다.

서울경인교구 신정희 박정희 지회장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대성사님의 뒤를 따라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서원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서원을 세우고 닦는 공덕이 새 마음 새 기운으로 종단 곳곳에 내려 종단이 더욱 화합과 발전을 이루게 하옵소서.”라며 종조 전에 발원했다.

박재원 기자

신년하례법회

또한 이날 법회에서는 정인화 전수와 원당 정사 두 스승의 퇴임을 기리는 기로진원식이 함께 열렸다.

스승들에게는 사령장과 기로가사가 수여됐으며, 그간 승직자로서 교화발전에 힘써온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와 선물도 같이 전달됐다.

정인화 전수는 퇴임에서 “부처님 은혜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자 행복이다. 그동안 교화 일선에서 경험하고 공부해온 것을 토대로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나갈 것이다.”고 인사했다.

이날 기로원에 진원한 정인화 전수는 1993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을 수료하고 전법관정수계 후 승직에 올랐다. 부산경남교구장을 비롯해 제8대 중앙총의회 의원, 사감위원, 원의원 등을 역임하며, 덕화사, 정각사, 관음사 주교를 맡아 교화와 제도에 정진해왔다.

원당 정사는 2005년 1993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을 수료 후 전법관정수계를 받고 승직에 올랐다. 중앙총의회 의원,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이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 통리원 교정, 재무, 총무부장 등 종단 내 주요 소임을 두루 맡아 오며 종단 발전에 앞장서왔다. 벽룡사, 밀인사, 본산 총지사 주교를 역임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해 말 서울경인교구 신정희 지회장직을 마친 김은숙 교도에 대한 종령 예하의 공로패가 전달됐다. 김 전 지회장은 퇴임 인사에서 <관련기사 11면> 그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쉬움도 남지만 기쁜 마음으로 여생을 건강하게 잘 회향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상미 기자

“올 한해 무연대자 동체대비 실천”

1월 8일, 계묘년 새해불공 전국서 회향



마산 운천사(주교: 정원심 전수) 스승과 교도들은 1월 8일 저녁 9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철야용맹정진을 마치고 마산 앞바다에 어류 방생으로 새해불공을 회향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불공이 지난 1월 2일 전국 사원에서 임재를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용맹정진을 마치고 1월 8일 회향했다.

종령 범공 예하는 신년법어를 통해 “어려운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은 자비의 실천이다.”고 설하고,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이 시대를 당당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고 범문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우리 종단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빛을 밝혀 어둠을 물리치고,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충만한 날이 되도록 앞서 나가자.”고 인사했다.

불교총지종의 전통 수행 정진법인 새해불공은 한해의 살림불공으로 원정 대성사가 임교개종과 함께 시행한 정통 수행으로 해마다 새해 첫 주에 시행된다.

소통과 신명나는 종무행정 서원

총기 52년 통리원 시무 불공 봉행



총기 52년의 새로운 시작과 공평무사 종무행정을 서원하는 통리원 시무식이 1월 10일 본산 총지사 서원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무식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 총무부장 록경 정사, 재무부장 승원 정사를 비롯한 20대 통리원 집행부와 종무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스승과 종무원간의 막힘없는 소통과 신명나는 종무행정을 위해 계속 노력

해주길 바란다.”면서 승단 내부의 결집과 교도간의 화합을 함께 당부했다.

이어 총무부장 록경 정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두에게 고마운 일 밖에 없었다.”면서 “계묘년 토끼의 해인만큼 활기차고 재미있게 작은 일부터 즐기며 살아가자.”고 인사했다.

이날 시무식을 기점으로 통리원은 총기 52년 공식적인 종무행정에 돌입했다.

김상미 기자

내마음의 등불

선립사 수현 정사

보리를 얻으려면 육바라밀을

비유하면 농부가 좋은과실을 얻으려면 과일 나무를 깊게 심고 때를 맞추어 물을 주며, 싹이 나서 점점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가 과실을 먹게 되는 것이니, 보살도 이와 같이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육바라밀을 배우고 닦아야 할 것이다.

(불교총정 P276 제4편 자기에 대한 덕의 중)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선립사 수현 정사님은 법전사 화령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불기 2567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국태민안 불교중흥 발원, 대불련에 장학금 전달도



불기2567(2023)년 계묘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가 지난 달 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와 총무부장 목경 정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를 비롯한 한국 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주요 임원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계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등 국회 정각회 회원들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장정화 대불청회장, 김영석 포교사단장 등 교계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종단협 부회장 범명 스님의 개회사와 주요 인사와 내빈의 헌등과 헌화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

해 “불자들의 역할은 잘못과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고통에 빠진 이웃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나누자.”고 설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 종단협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선도해나갈 청년들의 포교를 위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장학금 천만 원을 전달했다.

김상미 기자

신영복 선생의 <담론>

지혜의눈

동양 고전과 현대 사상과의 기록 관계·생성론적 관점 불교와 닮아

신영복 선생님은 20여년의 장기 복역을 치르고 출소한 후 성공회대에서 주로 동양고전을 강의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펴낸 분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동양고전에 대한 강의 내용을 담은 책이 <강의>와 <담론>입니다.

그런데 <강의>와 <담론>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없지만 <담론>에서는 동양 고전과 현대 사상과의 연관성을 추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대사회에서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고, 그 인간에 의한 무한한 발전의 낙관적 관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없는 참혹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낙관적이고 진보적인 인간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담론에는 춘추전국시대의 주요 사상의 내용과 그와 관련된다고 여기는 현대사상이 함께 언급되고 있지만 불교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는 한나라때 와서야 비로소 중국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변화를 전제로 세계를 관계론적이고 생성론적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교와 닮아있습니다.

무상(無常)이란 이 세계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고 연기(緣起)는 생성론적 관점으로 재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의 내용과 불교의 내용의 유사성을 보면 창조론과 현대 과학을 엮으려는 억지스러움이 없습니다. 천체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도 불교와 매우 유사한 논리를 바탕으로 전개합니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전쟁의 당사자들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1968년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에 이르는 전후세대에 의해 ‘68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대변동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일련의 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들뢰즈, 데리다, 푸코 등입니다. 서양 철학은 궁극적 물질로서의 원자를 상징하듯 ‘존재’로서의 인간을 상징하고 존재론을 전개해나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과 달리 동아시아의 인간관은 ‘관계’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앞서 언급한 서양의 현대 철학자들이 존재를 넘어서서 관계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담론에는 비교적 최근의 내용인 움베르토 마투라나의 생성(生成)주의적 세계관으로 번역되는 오토 포이에시스(auto poiesis)까지 담겨있습니다. 생물학자인 마투라나는 자신의 제자이자 인지학자 프란시스코 바렐리와 함께 새로운 관점으로 생명의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적 논리위에 세워진 구조물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존의 종교는 벌써 종파에 상관없이 낡은 과학적 인식체계위에 서있기 때문에 그 토대가 무너지면 존립할 수 없습니다. 기왕의 종교가 과학이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관을 적극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멸할 것인지가 금세기에 안 에 판명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기성 종교에서 불교는 가장 오래된 종교입니다. 그만큼 낡았다고 볼 수 있으나 역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존립기반이 약화되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불교는 오히려 존립기반이 덜 약화되거나 역으로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뒤엉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방향을 거쳐 비교적 늦게 불교적 세계관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불교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자문할 때입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학교법인 관음학사 제205차 이사회 개최



학교법인 관음학사(이사장: 우인 정사) 205차 이사회가 지난달 27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개최됐다.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를 겸해 마련된 이사회는 이사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새로 선임된 지현 전수(자석사)와 권근태(동해중 14회 졸업, 공학박사) 감사가 처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학년도 법인회계 4차 추경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사회는 또 동해중학교 시설 공사와 졸업생 진로 현황에 대해 송인근 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동해중학교는 총 24억 4천 만원을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공사 중에 있다.

<관련 인터뷰 9면>

불교계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정부의 종교편향과 차별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계묘년 새해, 희망과 발전을 소원하는 보신각 타종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위 공직자의 종교편향 보도로 국민과 불자들은 충격과 실망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설치된 고위공무원의 범죄수사처의 책임자인 김진욱 처장은 직원들과 함께한 신년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김진욱 처장 개인의 종교인상을 공격적인 자리에서 여과없이 드러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종교중립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타인의 잘못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부처의 책임자가 공과사의 구분이 없다면 어찌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기대 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계는 오랜기간 공공기관과 단체의 끊이지 않는 종교편향과 차별을 겪어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의 종교차별금지과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는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무분별한 언행으로 공직사회는 종교편향과 차별의 진앙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종교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종교 사회인 대한민국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직의 수장이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과 종교관으로 편을 나누고 차별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사회 이룩은 영원히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김진욱 공수처장과 같은 언행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열하게 하는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에 불교계를 대표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은 물의를 일으킨 김진욱 공수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공직자의 종교편향과 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불기2567(2023)년 1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태고종	불교총지종	대한불교대각종	대한불교보문종	(재)대한불교원효종	대한불교총화종
(재)대한불교일부선교종	대한불교삼문종	대한불교대승종	대한불교용화종	한국불교미륵종	(사)대승불교본원종	(사)대한불교원용종	한국불교여래종	보국불교염불종	(사)대한불교조동종
(사)대한불교법상종	(재)한국불교법륜종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진언종	대한불교화엄종	대한불교법연종	대한불교미타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법화종	한국대승불교불이종

계묘년 새해불공 오세대제도 서원, 교화의 불씨 당긴다

지인사 신정회 상임고문 위촉, 수인사 신정회·수인회도 새 임원 구성



왼쪽부터 지인사 법우 정사, 홍순유, 노진숙, 전화자 교도 인지심 전수



수인사 법상 정사, 정원 전수, 뒷줄 왼쪽부터 최형분 김예선 이은희 이남이 장정순 김진아 교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전국 사원에서 교화 발전과 제도의 서원을 세우고 삼밀육행의 정진에 나서고 있다.

인천 지인사(주교: 법우 정사)는 새해불공 기간 서원사항으로 지인사 교화 발전에 주력하고 회향 후 지난 1월 8일 신정회 회장을 역임했던 홍순유(수자님), 노진숙(일명심) 교도를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

법우 정사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지인사는 교도들과 함께 교화에 힘쓰는 한해를 서원했다.”며, “교화 경험이 풍부하고 덕을

갖춘 두 분을 상임고문으로 새롭게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순유 교도는 1973년 입교해 50년이 넘게 진언행자로 수행정진중이며, 노진숙 교도는 서울경인교구신정회지회 부회장, 마니합창단 등 종단발전을 위해 두루 활동을 해온 교도다.

또 법우 정사는 “지인사는 총기 2년에 교화의 문을 연 유서 깊은 사원이며, 수도권 교화의 발원지라 할 수 있다.”며, “그 맥을 다시 잇는다는 생각으로 불공정진수행은

물론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비로자나 범계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전했다.

포항 수인사(주교: 법상 정사)도 새해 들어 신정회와 수인회 간부들을 새롭게 구성하고 포교의 신심을 다졌다. 수인사는 신정회 활동뿐만 아니라 함께 봉사단체인 수인회의 자비나눔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겨울만해도 김장김치 250박스과 동지 팔죽도시락 200개 나눔으로 온정을 나눴다.

법상 정사는 “새해에는 신정회와 수인회가 자비나눔을 통한 교화에도 나서자고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이제 마스크도 벗고 대면 접촉이 여러모로 쉬워져 사부대중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볼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로 선임된 수인사 임원은 다음과 같다. △신정회 회장 이남이 △부회장 이은희, 장정순 △총무 김진아 △수인회 회장 최형분 △부회장 이미향, △총무 김예선

박재원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부산 법성사 강동하 군



부산 법성사(주교: 법선 정사) 교도 강동하 군이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했다. 강군은 법성사에서 40여 년간 진언 수행을 정진해오다 몇 해 전 고인이 된 전병원 교도의 손자다. 강군의 고모인 법성사 강경리 교도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에 돌아가신 어머니(강군 할머니)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며, “불공 정진 이끌어주시는 스승님과 축하해 주신 교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축하합니다

입학을 축하합니다

정각사 노현창 군 연세대학교 융합사회과학부(귀구임 교도 손자)

수상을 축하합니다

정각사 원소현 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백순이 보살 손녀)

결혼 축하합니다

륙경 정사, 범수연 전수 장남 황보 순호 군 2월 15일(수) 하와이 라이에 (Laie, Hawaii, USA)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2월19일 총지사 신사생 김성민 영식 49재

총지신문 278호 10면 신년 광고 중 대구경북신정회 지회장의 성함을 윤복자로 바로잡습니다.

강남구립 초록어린이집 위탁 선정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오는 3월부터 5년간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서울시 강남구 구립어린이집 초록어린이집(원장: 유지영, 서울시 강남구 현릉로 590길 63 세곡5단지 리엔파크 관리동 소재) 재위탁체로 선정됐다. 강남구청은 지난달 19일 2023년 제1차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9일부터 5년간 사회복지재단이 다시 맡아 운영하게 됐다.

이에 앞서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월 6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이사 전원 결의를 통해 강남구립 초록어린이집 재위탁운영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초록어린이집은 종단이 1999년 5월 29일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설립 후 2012년 5월 19일 개원부터 운영을 맡아온 최초 어린이 보육시설로 의미가 있는 곳이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바른 인성교육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목적으로 시작한 보육 사업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초록어린이집 원아모집 문의 02)445-2326

출납기를 넘지 못하는 아이, 걱정 NO! 하재희 원장,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발간

사회복지재단 산하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강남구구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좋은 학부모가 되고 싶으나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학부모를 위한 책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기본생활, 신체운동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영역의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된 이 책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출납기를 넘지 못하는 아이, 할퀴는 아이,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는 아이들에 대한 원인과 지도 방법에 대해 성실히 안내하고 있다.

하 원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음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적기 경험을 통해 바르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자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강남구구립어린이집연합회를 비롯 재단 산하 힐스어린이집 광방은 원장,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원장이 집필을 도왔다. 강남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받아들 수 있으며, 종단이 발간하는 <위드드라마>에 3월부터 연재될 예정이다.

초록 어린이집

도시 속 자연과 함께하는 초록 어린이집

아이들의 웃음, 꿈과 사랑이 가득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초록 어린이집입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25 세곡리엔파트 관리동

교육상담 02-445-2326

정인화 전수 퇴임사

부처님 은혜, 최고의 선물이자 행복



오늘 기로 진원식에서 종령님께서 설하셨듯이 참으로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선대 스승님들과 동료, 후배 스승님들과 그리고 불철주야 함께 진언수행해온 우리 교도들이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를 부처님께 이끌어 주시고 부모와 같이 보살펴 주신 환수원 전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름 모를 질병으로 몸이 매우 아파 시달리던 중 환수원 전수님 제도로 처음 종단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살기 위에 이곳을 선택했고 오랜 시간 종단에 몸담으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교로 처음 발령 받았을 때는 밤낮없이 정진하며 숙제를 풀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법문으로 식사를 거르면서도 그 속에서 보배 같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주변의 지인들은 이제 건강을 챙기며, 여유 있는 여생을 보내라는 등 많은 걱정과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묘년 새해 불공에서 부처님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여쭙고 간절히 서원하였습니다. 불공 중 몇 번의 울컥함을 인내하고 결국은 부처님 앞에 참회와 감사와 환희의 통곡을 쏟아 내기

“
우리 밀교법은 증득법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인과의
법칙을 깨닫고, 고통 받는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최고의
가르침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 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 누구나 아쉬움과 회한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밀교법은 증득법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인과의 법칙을 깨닫고, 고통 받는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최고의 가르침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모두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세계 얼마의 시간이 주어지지 모르겠지만, 30년 넘게 교화 일선에서 경험하고 공부해온 것을 토대로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며 삶을 회향하고자 합니다.

종단 발전을 위해 우리 스승님들이 더욱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존경받는 스승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이달의 법문

마음의 연기(緣起)

마음으로 능히 모든 업을 지으며 모든 과를 안다.
이러한 여러가지 심행은 능히 삼계에 모든 행동을 일으키며,
마음에 이끌리어 모든 곳에 해매어 곳곳에 몸을 받아 나게 되니 다함이 없다.
마음은 업매임과 해탈의 근본이다. 이런 고로 마음을 으뜸이라 하는 것이니
선을 행하면 능히 해탈을 얻고 악을 지으면 업매임을 입는다.
이렇게 마음과 뜻은 중생으로 하여금 삼계의 바다에 빠지게 하여
어리석음과 애욕의 번뇌로 저 열반성(涅槃城)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마치 눈뜬 장님이 바른 길을 잃은 것과 같다.

<불교총전 76쪽 『정법엄처경(正法念處經)』 >



자서사 도우 정사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입니다.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줄이면 『반야심경(般若心經)』이 되고 5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1자로 줄이면 마음 심(心)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 의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마음을 깨우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괴로움을 만들어 내는 씨앗도 있지만 행복을 만들어 내는 씨앗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각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움도 행복도 결국은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발에 다양한 씨앗을 뿌려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말과 행동, 생각으로 다양한 마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바, 우리의 마음 밭에는 기쁨과 행복의 씨앗도 있지만, 슬픔과 괴로움의 씨앗도 있습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고 키울지는 우리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흔히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극락은 밝고 깨끗하며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반면, 지옥은 어둡고 극단적인 고통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락과 지옥은 따로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 정도는 불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걱정이 없으면 극락이고,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걱정이 많으면 지옥이 아닐런지요!

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악을 지으면 스스로 그 죄를 받고, 선을 지으면 스스로 복을 받습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매일매일 쌓이고 있고, 그 결과로 다음 생에 업보에 따라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경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중생은 부처님 말씀을 잘 믿지를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마음 공부를 통해 삼독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 인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깊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이런 연유로 마음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를 통해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심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불교수행의 목적인 해탈이며 열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업만은 남아 있어 다음 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생에서 우리가 할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행과 악행이 있는데 그 과보를 생각한다면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과는 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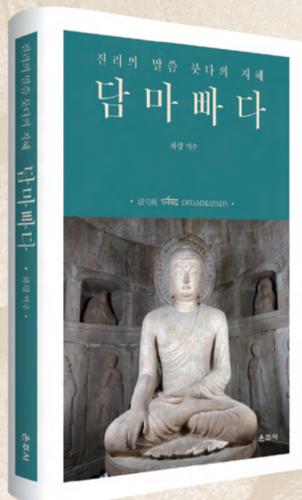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대로 수행은 하지 않으면서 조상 탓하고, 주위환경과 남을 탓하다 보면 자꾸만 악업이 쌓여가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남을 괴롭히거나 선하지 못한 행을 하면 미래의 불행을 만드는 것이고, 현재는 괴롭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선한 행을 하면 미래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인과의 법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이기에, 깊이 명심하고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확고한 신념으로 항상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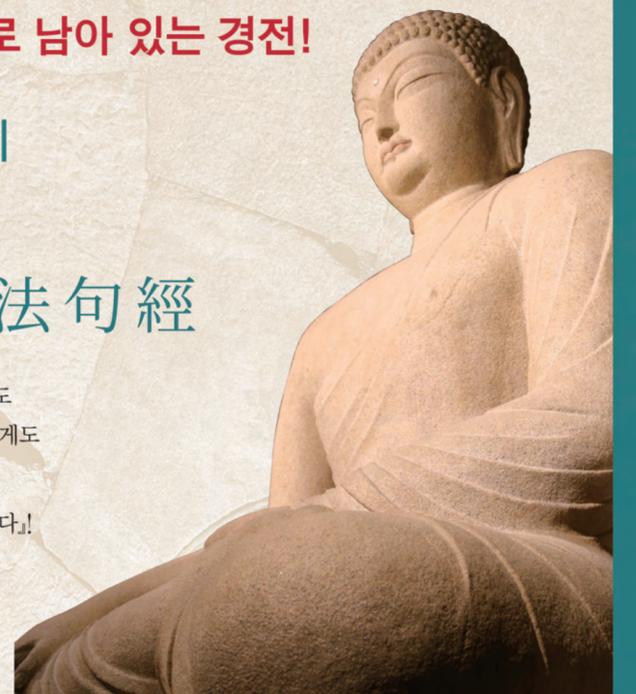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담마빠다 法句經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팔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빠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불교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새로운 길과 만나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16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총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미군정이 뿌리를 내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자 사회는 또 한 차례 격동을 겪었다. 1948년 2월 소위 '2.7구국투쟁'으로 전국 단위의 파업이 일어난 것이다. 소요 당일 밀양은 마침 장날이라 인파가 몰려 들었다. 정치적 소요의 바탕에는 미군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깊이 깔려 있어 소동은 급격히 번져 갔다. 밀양 농민들은 경찰지서를 공격했고 모든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

이렇게 소요가 격해지자 밀양공립농잠학교를 비롯한 각 학교 학생들은 동맹 휴학에 참여했다. 시위에 나섰던 많은 학생이 체포되는 일이 생겼다. 교육자로서 대성사는 깊은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소란을 진정시키고 또 한편으로 체포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혼란이 계속된다 하여 스승의 역할과 태도가 바뀔 수는 없는 법이다. 대성사가 후일 총지종을 창종하고 천명한 스승의 사명에서 관계를 스승과 학생으로 바꿔 살펴보면 당시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스승은 매일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 그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가장 앞자리에서 활동하므로 그 사명이 무겁고 커서 사회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한다. 스승은 세상의 거친 흐름과 변화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세워 그에 따라 생활하여 인격을 완성하고, 세상의 평판과 이해에 따라 무릎 꿇거나 흔들리지 않는 지조와 정의에 투철한 모범적인 스승이



1948년 밀양 농잠학교 재직시 _맨 앞줄 맨 왼쪽 대성사

밀양공립농잠학교 재직, 공평무사함으로 교직원·학생 신망받아 선한 인을 일으켜 시류에 휩쓸려 악한 편에 서지 말 것을 당부

되어야 한다.”

이 모습을 당시 대성사의 삶에 비추보면 어떻게 학생들을 이끌고 가르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성사는 좌와 우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공평무사함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다. 양극단을 여의는 불교 중도의 가르침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기에 서로를 적으로 두고 대립해서는 결코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없다는 통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냉철함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는 태도는 하얼빈 시대 이후 지속해온 생활의 방침이었다.

2.7 사태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100여 명이 숨졌고 8,500명 이상이 체포돼 투옥되었다. 대성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농잠 중학교 학생들의 피해는 최소로 줄일 수 있었지만, 더 큰 폭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전국적인 파업과 봉기 사태가 진정한 것도 잠깐 사이,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도 4.3사건이 벌어졌다.

시대는 피와 광기로 물들었다. 역사의 폭풍우 속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기억이 시작된 이후 대성사는 한순간도 편히 마음을 놓을 때가 없었다. 어린 걸음으로 망명길을 걸어 압록강을 건너야 했고, 독립 전쟁의 고초를 지켜봐야 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고향에서 멀리 떠난 이역의 땅에서 살아야 했다. 광복된 조국은 또다시 이념으로 갈라져 서로에게 미움과 원망을 겨누고 있었다.

좌우 충돌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대성사는 평소 깊은 관심을 두고 있던 불교 경전과 교리를 더 깊이 연구하게 된다. 이념의 대립과 권력투쟁을 떠난 제삼의 길,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은 것이다. 하지

만 세속을 떠나 산중에 홀로 수행하는 그런 불교로는 과학과 문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의 길잡이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깊이 깨달았다.

20세기 초에 불타오른 중국의 거사 불교 운동은 대성사가 그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데 큰 지침이 됐다. 불교가 더 이상 산중에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실천은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었다. 대성사는 기복이나 운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구할 새로운 길을 찾은 것이다. 이념의 대립과 혼돈으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불교 경전과 책에 몰입했다. 좌우 어느 편에도 휩쓸리지 않고 학생을 대할 때는 스승의 위치를 잊지 않고, 누구나 인생의 물음을 구하려는 이에게는 답을 주었다. 밀양 인근에 대성사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져서 불교뿐 아니라 세상 들

아가는 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이로 평판이 자자했다.

혼란과 위기 속에도 아이는 자라 어른이 되고, 분단된 남과북도 조금씩 나라의 꼴을 갖추어 갔다. 대성사의 외아들인 손순표도 성장해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에 진학했다. 대성사는 새로운 조국의 인재가 되기를 바라며 아들의 상경길을 배웅했다.

이 일이 후일 큰 파란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삶과 세상은 모두의 바람대로 풀리는 법은 아니어서 희망으로 시작한 일도 한없는 고통을 줄 수 있는 법이다. 인연과 인과는 깊고 묘한 법이다. 시국은 평온해 보였지만 남한의 정치 상황은 나날이 복잡해져 갔다. 남과 북의 갈등과 긴장도 깊어졌다. 밀양에도 좌익분자를 색출하는 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간 사냥으로 이어졌다.

대성사의 고향에서도 좌익으로 체포돼야 산에서 총살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대성사는 공무원이자 교사로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학생과 친지들에게 영똥한 일이 닥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당시 시류와 정국이 흘러가는 형국은 대성사가 밝힌 사물의 발전 법칙과도 흡사했다.

“좋은 인(善因)과 좋은 연(善緣)이 만나면 좋은 결과(善果)가 생긴다. 좋은 씨앗을 비옥한 땅에 심은 것과 같다. 선한 인(善因)과 악한 연(惡緣)이 만나면, 우세한 편에 따라 결과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 악한 인연이 만날 경우 당연히 악한 결과가 생긴다. 악한 인(惡因)과 선한 연(善緣)이 만날 때, 우세한 편에 따라 선과 악의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당시의 시국이 꼭 그런 모습이었다. 서로 선을 주장하지만, 악과 만나 힘을 겨루다가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했다. 선악의 평판이 하루아침에 갈리는 일도 잦았다. 대성사는 결국 내 안의 선한 인(因)을 일으켜야 하고 밖으로 착한 연(緣)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가족과 주변에도 이런 이치를 늘 이르고 자중하고 시류에 휩쓸려 악한 편에 서지 말 것을 당부했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밀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현세정화'와 '즉신성불'

총지종의 역사

03. 밀업정도의 기틀 확립

현세정화 즉신성불의 수행체계 정립①

창종 후 8년 만에 전국에 27개 사원을 갖추고 활발한 교화활동을 펼치는 동안 총지종의 교의와 수행체계 역시 발전을 거듭했다. 줄곧 경전에 입각한 밀교의계를 연구해 온 원정 대성사는 총지종 창종 이후 연구에 박차를 가해 밀교 교리체계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이를 정착시켰다. 밀교 수행의 궁극의 목표는 범신불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곧 부처라는 철저한 자각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이 몸 그대로 현생에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개인의 자성과 범신불의 진리를 합일하기 위해 삼밀가지(三密加持) 수행법을 닦는다. 원정 대성사는 이를 '현세정화(現世淨化) 즉신성불(即身成佛)'의 가르침으로 구체화했다.

현세정화가 곧 내세극락이 된다

현세정화가 곧 내세극락이 되는 것은 윤회하여 다시 태어나는 까닭이 아니라, 그 열반이 단독이 아니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까닭이며 개인상대가 아니고 사회상대를 하는 것이다. 속세를 구제하지 못하면 극락도 없다. 현세에서 악함을 고치지 못한 사람이 어찌극락으로 가겠는가. 이것이 대승이다. 염불왕생보다도 자신이 실천하고 남을 지도해야 한다. 이것이 성불이요, 복덕이 그 중에 있는 것이다. 지옥에는 소인이 들어갈 것이고 극락에는 선지식이 오를 것이다.

『중조법설집』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이라 해도 가까이하기 어렵다. 환경이 순탄하지 못하면 불도수행도 여의치 못하기에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밀교의 의례 가운데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현세이익을 추구하는 의례들은

성불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좋은 수행여건을 조성하여 중생을 성불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다. 질병과 재난 등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행을 통해 심성을 순화하고 개인의 욕망을 승화하여 보다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발심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의 고통은 사회 환경의 조건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종교의 존재 이유가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중생을 어루만지는 것이기에 원정 대성사는 항상 이 사회에 필요한 종교, 나라와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세정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원정 대성사는 재난을 여의고 복을 이루며 세상 모두가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화를 기원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불성을 밝혀 부처가 되기를 발원하라고 가르쳤다. 성불은 결코 특별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머나먼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하는 일도 아니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성불할 것을 궁극의 목표로 설정했다. 즉신성불을 지향하는 고도의 차원 높은 수행법과 재난을 여의고 복을 이루는 현세이익의 의례법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개인과 환경을 바르고 아름답게 가꾸는 현세정화와 스스로 불성을 자각하고 부처와 하나 되는 즉신성불이 진언행자의 수행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시시불공 처처불공의 수행원칙은 스스로 시간을 정해 보시하고 불공 염송하는 정시정송(定施定誦)의 수행법으로 정착되었다. 평상시에는 아침저녁으로 하루 2회, 중요



종단은 창종 8년 만에 전국에 27개 사원을 갖추고 활발한 교화활동을 펼쳤다. _정각사 서원당

한 서원이 있을 때에는 하루 4회,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불공하도록 했으며, 아침식사를 준비할 때 식구 수대로 공양미를 따로 모아 부처님께 가장 먼저 올리도록 했다. 물질이 풍요롭지 않던 시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시를 실천하고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을 불공으로 채웠다. 보시와 불공을 생활화하여 하루 24시간 불법 안에서 살도록 했다. 전국의 모든 교도들은 정시정송을 철저히 지켰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자성일 법회와 월초불공, 연 2회 49일 불공을 준수했다. 법회와 불공기간에는 승직자와 교도를 불문하고 오계를 철저히 지켰다. 자성일과 계행을 지키고 교도는 수입의 10%를 회사하는 십일회사, 스승은 20%를 회사하는 십이회사를 실천하는 수행문화는 총지종 종도라면 반드시 준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원칙으로 자리 잡아 지금까지 종단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하루 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 함에 있고
철일 동안 행복함은 자성불공 함에 있고
한달 동안 행복함은 월초불공 함에 있고

일년 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 함에 있고
평생 동안 행복함은 불퇴전에 있느니라.
『중조법설집』

원정 대성사는 '현세정화 즉신성불'의 수행 목표와 '시시불공 처처불공'의 수행 원칙에 기반하여 각종 수행법을 정립했다. 경전과 의례가 일치해야 하는 밀교 수행법을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보다 간편하고 핵심적인 수행방편으로 제시했다.

1973년부터 자성일 불공 첫 시간의 회향 정진과 49일 정진에 전 교도가 '원하건대 이공덕이 널리 일체에 미쳐져서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 이뤄지이다'는 내용의 회향서원을 독송했다. 자성일 서원불공을 마칠 때는 다른 이의 서원에 교도들이 모두 동참하여 공덕을 성취하게 하는 대중동참 불사법을 실시했다. 불공에 동참한 모든 교도가 다른 이의 서원을 같이 빌어주는 시간을 별도로 배정하여 첫째 시간에 공공서원, 둘째 시간에 개인서원, 셋째 시간에 동참불

공을 시행했다. 자신의 불공만 하지 않고 서로의 불공에 다 같이 동참하는 수행전통을 만들었다.

또한 교도가정에 병고나 재난이 있을 때, 이사하여 입주할 때, 영식 천도할 때, 서원이 있을 때 스승이 교도가정을 방문하여 진택불사법(鎭宅佛法)을 시행했다. 자성일 대중동참불사와 49재, 진택불사, 기제 열반 불사 때 반야심경을 독송하되 내용 중 '원리 일체전도몽상' 등으로 밀교의 반야심경을 재정립했다. 이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 여타 불교종단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불교연합행사 참석이 늘면서 편의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반야심경으로 통일하여 독송했다. 식사 전이나 옷을 갈아입을 때 마음속으로 부모님과 부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보은심고법(報恩心告法)을 확정하여 불교의 공양계인 오관계의 핵심사항을 되새기도록 했다. 그리고 불공견삭비로자나불 대관정광진언염송과 오색광인 수인을 장례법으로 채택하여 망자를 위한 천도관정법을 시행했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옷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범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중조법설집 보시와 범시 편 중>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본연의 마음과 상징의 세계<2>

현도 태장만다라는 중대팔엽원의 네 모퉁이에 보병이 있고, 금강계만다라에는 일인회(一印會)에 보병을 볼 수 있다. 보병은 우주 생명원리의 상징으로서 멀리 히란 야가르바(Hiraiyiya-garbha 황금의 태)에서 발원하고 그것이 곧 여래장(tathāgata-garbha)과 관련되어 여러 보물을 소장한다고 하여 보병이라 불리게 된다.

밀교에서 보병이라고 하면 오보(五寶), 오곡(五穀), 오락(五樂), 오향(五香)을 넣어 지수(智水)를 채우고 보화묘화(寶華妙華)를 병에 꽂은 것을 가리키지만, 역시 보병은 원래 대지의 보물을 가리켜 지천(地天)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나아가 정보리심이라는 대지의 보물을 나타내어 완성된 인격의 제덕을 장엄하게 나타내게 된다. 이 정보리심이야말로 무한한 보장(寶藏)이자 우주의 생명체이며 우주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런데 보주, 보병은 행자가 우주와 일체화하여 생명이 넘치는 것, 모든 것에 빛을 주고 생명의 숨결을 주는 것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보주에 화염이 발생하거나 금강저가 빙 둘러싸고, 보병에는 보화(寶華)가 생긴다. 또한 보주나 보장(寶藏)을 담은 보병이 정보리심을 나타내 중대팔엽 대연화의 생명과 네 귀퉁이 보병, 또 금강

계일인회 지권인 대일의 지혜 발현과 보병과의 관계는 밀접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주, 혹은 보병의 상징은 우주와 일체화된 행자의 본연의 마음, 뛰어난 보물의 마음을 나타냈다고 하나 유가행자와 함께 나타나듯이 행자의 마음에 역점이 놓여 있다. 우주만물은 지의 요소, 수의 요소, 화의 요소, 풍의 요소가 있고, 그리고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포함한 공의 요소가 있으며, 그것은 또한 객관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세계에도 있는 것이다. 이 양자의 일여유즉(一如融即)의 상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우선 세계는 대지(大地)를 기초로 하여 성립되어 있다. 대지는 일체를 지탱하고 모든 부를 낳는 근원의 세계이다. 이 대지의 덕에 비유하여 자기 인격을 지탱하는 대지는 정보리심의 마음의 땅이다. 그것은 견고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기르기 때문에 방형으로 하여 황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청순무구한 마음은 생명의 세계를 넘어 불생불멸의 근원의 세계를 시현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대지를 방형, 그리고 세계의 근원을 황색으로 보여준다.

수(水)는 일체를 정화하고 방원의 그릇

으로 만물을 자육한다. 이 덕에 비유하여 정보리심을 원만 청정한 덕으로 증대시킨다. 그래서 원형으로 만들어 백색으로 표시된다. 또한 수의 변역 유동성은 고정관념을 깨고 언어의 한정된 개념세계를 깨고 사물의 진실세계를 열고 보려(觀開)고 한다.

화(火)는 일체의 지지분하고 더러운 것을 소진하여 청정하게 함과 동시에 태양의 분신으로 위대한 에너지를 갖는다. 이 덕에 비유하여 정보리심의 큰 힘은 지혜가 되어 번뇌를 소진하고 일체를 정화해 나간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삼각형으로 하여 적색으로 나타난다. 지화(智火)는 항상 좁은 마음을 깨고 사로잡히지 않는 공의 마음으로 이끌어 간다. 대일여래의 작용을 지화로 보여주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

풍(風)은 일체의 티끌과 허물을 털어내고 유동 변화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에 비유하여 정보리심은 항상 인생의 폭풍과 싸우면서 무상 변화 속에 자기를 확립해 나가니 반월(半月)에 흑색으로 나타난다. 이 작용은 일체의 인과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 공(空)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

이상의 네 세계의 기능은 '공(空)'의 여러 가지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공은 일체의 한정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

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본래의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보주형으로 나타내게 된다. 색은 공의 색에 따라 청색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주는 자기 자신의 본래 마음이며, 게다가 우주의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며, 자타의 분별을 초월한 일체공(一切空)의 입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지수화풍공(地·水·火·風·空)의 다섯 가지는 정보리심의 본연의 자세를 가령 다섯 가지로 나눈 것으로, 그것은 또한 우주의 영원한 생명과 일체화된 상징이기도 하다. 다섯 가지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 우주를 채우기 때문에 오대(五大)라고 하며, 이 요소들은 대생명체가 되어 우주의 진리를 개현해 나가기 때문에 오륜(五輪)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태장대일은 우주의 생명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륜으로 표시되고, 이를 법계탑과(法界塔婆)라고 부른다. 『태장삼매야도(胎藏三昧耶圖)』의 대일여래는 오륜탑에 나타나 있다. 모양은 방형, 원, 삼각, 반달, 보주형으로 나타난다. 이 형태는 또한 『태장삼매야도』의 각 단 만다라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대일별단(大日別壇)은 방형, 불부별단(佛部別壇)은 원형, 명왕별단(明王別壇)은 반월형, 마두별단(馬頭別壇)은 삼각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오대오륜(五大五輪)은 곧 우주의 대생명이고, 그 체득은 여래의 생명이며 지혜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여래는 대상이 아니라 '여(如)'라는 근원의 세계에서 온 것으로 우주의 진실이자 자기의 진실 그 자체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빛나고 생명으로 가득차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태장, 금강 만다라의 모든 제존은 모두 대일 그 자체에 지나지 않고, 대일은 제존에게 빛을 내어 생명을 부여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외원(外院)의 신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일이다. 외원에는 화천(火天)과 지신(地神), 성숙신(星淑神), 귀신의 종류가 많이 나타나 있다. 이들 신은 원래 자연신이나 이교신, 약령귀신이기도 하다. 인도 종교의 토양이 되는 신들이지만 만다라에 편입된 신들이다.

만다라는 차별 없이 일체를 포함한다. 만다라의 입장에서 본 신들은 단순한 자연신도, 이교의 신들도, 약령귀신도 아니다. 모든 것은 빛나는 세계이며 우주의 만물은 빛 속에 싸여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자연의 산, 새소리, 들꽃, 우주의 모든 것은 빛 속에 있다. 그것이 밀교 유가(yoga)의 세계요 비밀의 세계요 만다라의 세계인 것이다.

연재 끝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제14대 달라이라마 텐진 가초(1)

근현대사를 통해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달, 그리고 부수적 영향으로서 환경파괴는 인류의 종교와 정신세계에 많은 과제와 변화를 종용하고 있다. 시대의 혼돈속에서 많은 지성들은 인류를 이끌 지혜는 오로지 불교에서 나올 것이라 판단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서양에는 승산과 스즈끼에 의해 선불교가 소개되었고, 테라와다가 유행하였으며, 이외 많은 불교국가의 종파가 서구사회에 발을 들였다. 티벳불교는 불교보다 정치문제와 얽혀 국제사회에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티벳은 중공의 강점으로 1959년 나라를 잃고 인도에 망명하였으며 정치, 종교지도자인 달라이라마 14세가 지금까지 티벳인 망명사회를 이끌고 있다. 국제사회는 달라이라마에게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여 나라를 잃은 티벳인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꿈불사원

현대의 종교, 정신세계에 티벳불교가 중요한 이유는 방대한 불교문화에 대해 달라이라마 14세(본명 텐진 가초, 이하 성하)를 중심으로 인도, 티벳의 고전문헌들을 제련하여 현대의 지식에서 반조, 승화하고, 인류가 나아갈 길을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 14세처럼 서구사회에 많은 강연과 저서를 통해 불교의 해박한 사상과 사유, 자비를 전한 인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의 설법이 간략하고 간결하며, 붓다의 자비사상은 청문자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고 서구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 주된 배경은 나란다대학의 전통에서 볼 수 있는 불교철학의 발달된 사고와 논리학, 밀교수행에서 볼 수 있는 탁월한 심리학과 심성변화의 기술일 것이다. 달라이라마의 전통은 이미 기고한 바 있지만 달라이라마 14세 성하는 국제 불교계

가 인류구원의 정신으로서 불교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온 중심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달라이라마 14세 성하는 그의 공식 홈페이지가 있다. 그의 출생을 비롯한 간략한 전기도 있으며 그가 해온 설법의 이력과 수상, 그리고 그가 매해 설법하는 일정들이 소개되어 있다. 참고로 달라이라마의 설법을 청문하고 싶으면 홈페이지에서 설법 일정을 파악하고 티벳정부 사무소에서 미리 접수해두어야 한다. 또한 인도 내 티벳인 난민 거주지일 경우 인도정부의 허락과 비자도 받아두어야 한다.

홈페이지의 전기를 요약하면 달라이라마 14세 성하는 1935년 7월 6일 암도지방의 딱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성하는 변덕스런 기후변화로 대규모의 농작이 불가능한 작은 규모의 농업을 꾸리는 가난

한 농부의 부모 슬하에 태어났으며, 처음에는 이름을 '하모 된둠'이라 하였다. 형제자매는 모두 7남매로 성하를 포함한 4형제와 2자매로 이루어졌다. 달라이라마는 어릴 때 성정이 급하고 솔직한 편이었고 특별히 주목할 것이 없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회고했다.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항상 앞장서서 집을 싸고 여행가는 놀이를 좋아했으며, 언젠가 자신은 티벳의 수도인 라사에 갈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였다.

달라이라마 14세의 전생인 달라이라마 13세는 툽텐 가초라 하였으며 1933년 57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달라이라마 13세의 입적 이후 그의 환생을 찾기 위한 탐색팀이 꿈불사원에 도착한 것은 당시 하모 된둠이 2세 되던 해였다. 환생을 찾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징조를 참조하게 되는데 전생인 달라이라마 13세 유해의 얼굴이

납작에서 북서쪽을 향하였고, 특히 섭정인 고승은 깊은 선정을 통해 남 티벳의 하모 라 초 호수에서 '아', '카', '마'라는 글자의 환영과 더불어 이어 황금과 터키석으로 이루어진 3층 법당의 사원, 그리고 언덕으로 이어진 길을 보았다. 또한 특이한 모양의 배수 시설을 엮은 집을 함께 보았는데 섭정은 호수의 글자 가운데 '아'자가 암도를 뜻하며, '카'자는 꿈불사원의 머리자일 것이라 확신하였다. 탐색팀은 꿈불사원에 도착해 3층 법당을 발견하고, 이어 어렵지 않게 근처에서 지붕에 노송을 꼬아 물이 흐르는 농가를 발견하였다.

탐색팀 가운데 계장 린뵈체는 시종의 복장으로 신분을 감추고 하루 목을 것을 청하였고, 농가 하모 된둠이 노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을 시도했다. 그러나 아이는 계장 린뵈체를 보자마자, '세라사원의 고승'이라고 바로 지적하였다. 며칠 후 팀은 다시 달라이라마 13세의 유품을 가지고 와서 다른 물건들과 섞어 가려내도록 하였는데 하모 된둠

은 바로 가려내고, '이것은 내거야'라며 말했다. 다른 여러 시험끝에 하모 된둠은 달라이라마 13세의 환생으로 인정되었고 이후 절차에 의해 꿈불사원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달라이라마 14세 성하는 당시 개인적으로 불행한 시절이었다고 회고하였는데, 이때 그의 형인 툽삼 삼뵈이 이미 출가해 함께 생활했고, 또한 그를 부모처럼 돌보는 승려가 늘 함께 있어 어렵지 않게 보냈다.

하모 된둠은 머지않아 가족을 만났고 형인 툽삼 삼뵈이와 탐색팀은 라사로 향하였다. 그러나 중국인으로 무슬림 군관이었던 마부뵈이 막대한 뇌물을 요구하는 바람에 지체되었다가 1939년 여름 드디어 일행은 라사로 향할 수 있었다. 라사에 도착직전 수도에서 심리가랑 떨어진 되구탕 초원에 정부 관리가 마중나와 하루를 머물고, 다음날 대대적인 환영식과 더불어 일행과 하모 된둠은 라사 서쪽에 위치한 여름 궁전 놀부링가 궁에 안착하였다.

원	정	기	념	관	간	현	정
리	부	세	시	풍	속	등	월
금	고	시	청	기	등	대	
	정	가			기	보	
자	비	희	사		고	드	름
	용		도	베	르	만	
독				르	장	발	장
도	독	백	과	사	전		유
새		두	유	식	용	유	
우	공	이	산	지	혜	서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인터뷰 총립 동해중학교 송인근 교장

“가장 안전한 학습환경에 최선”

부산시교육청 24억 원 지원, 인조 잔디 운동장 등 ‘새단장’

총립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제205차 이사회가 지난 1월 27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해중학교 송인근 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조만간 마무리 될 교내 공사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참석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낮은 교사에 대한 해체와 대대적인 수리, 부설 시설에 대한 증축과 스탠드 개수를 포함한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에 이르기까지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총 금액 24억 원이 훨씬 넘는 지원을 받았다. 이 같은 지원은 사립학교로서는 유례 없이 드문 경우로 송 교장이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과 노력에 의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교사로서 늘 생각한 것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뛰어 놀며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김진화 교감을 총괄로 교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책임감 있는 학교 운영을 해주셔서 저는 교육청과 시의회,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2월 내 공사가 완료돼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새학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송 교장은 처음 체육관 시설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평교사 시절부터 맺어온 인연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결국 인조 잔디 운동장 개선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이를 위한 시설 점검 과정에서 노후 된 시설과 특히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찾아내 설득과 제안을 반복하면서 큰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운동부를 운영하면 지원 사업이 원활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자의 가치관에 따



라 조직이나 단체의 방향이 설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교장의 교육 철학에 따라 교사와의 협력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갑니다. 운동부를 통해 명성을 올리는 것 보다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 이날 이사회에서 보고된 졸업생의 2023학년도 진로 현황을 보면 졸업생 총 173명 중 한국과학영재고를 비롯한 부산과학고, 용인한국외대부설고 등 일반고를 제외한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에 49명이 입학했으며, 이는 부산광역시 내 중학교 중 가장 우수한 진학률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학교는 방과 후 자율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매주 월요일 4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심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학생들의 학습을 성실히 돕고 있

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 교장은 지난 2019년도 9월 교장에 부임하여 ‘학력 신장, 인성 교육, 진로 교육 강화’라는 기치로 학교 운영을 해왔다. 특히 이번과 같은 학습 환경 개선과 진학률을 보여주며 총립학교에서 명문 사학으로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오고 있다.

“새 학기가 되면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개선 사업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주목하고, 아울러 비효율성은 없는지 관찰하고 분석해 이후 학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만 꿈을 꿀 수 있다며, 동해중학교 학생들이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에 열정을 쏟겠다는 송 교장의 평소 신념이 더욱 빛을 발하는 2023학년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터뷰/사진 박재원 기자



‘침묵(沈黙)’의 진정한 가르침

천수종종 심수무성 정수유심(淺水淙淙 深水無聲 靜水流深)이란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얕은 물은 시끄럽게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으며,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른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깊이 새겨보면 ‘도량(度量)이 깊고 심지(心志)가 굳은 사람은 늘 언행(言行)이 무겁고 조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물은 깊을수록 고요히 흐르고 사람은 많이 배울수록 인품(人品)이 깊고 넓어서 말 한마디나 행동거지 하나에도 신중하며 언행(言行)의 무겁기가 짐을 가득 실은 수레와 같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만물(萬物)을 길러주고 키워주기도 하지만 결코 자신의 공(公)을 남과 다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물이라는 속성(屬性)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오직 낮은 곳으로만 흘러 늘 겸손(謙遜)의 철학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고 목청을 높이는 세상이지만 진실로 덕성(德性)을 갖춘 사람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옛말에 “짚는 개는 물지 않으며, 물려는 개는 결코 짚지 않는다.”라고 했듯이 대인(大人)은 허세(虛勢)를 부리지도 않거니와 또한 시비(是非)를 걸어 상대방을 굴복하게 하거나, 아예 싸움을 걸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속이 좁은 사람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기고자 하는 생각까지도 지나쳐서 허세(虛勢)만이 넘쳐날 뿐이며, 반면

에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삶의 이치를 알고 있어도 이를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붓으로만 세상의 옳고 그름을 말하게 됩니다.

옛날 어떤 가정에 산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께서 그토록 아끼고 조상 대대로 집안의 가보처럼 내려온 소중한 회중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리 찾고 또 찾아보았으나 찾을 길이 없게 되자, 결국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워낙 귀중한 집안의 보물이라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엄청난 꾸중을 들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어머니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온 집안을 다 뒤져봤으나 찾을 길이 없게 되자 결국은 아버지께 이 사실을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애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마 네가 잃은 시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며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준 후 침착하게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집안에 모든 전원까지 다 끈 채 조용히 있어 보자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얼마 되지 않아 ‘짜깁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환경이 조용해지자 이 시계는 구석진 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 주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려오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세상이 흥흥하고 시끄러

울 때는 조용히 침묵(沈黙)하고 있는 법도 배워야 하느니라. 그러면 평소 들리지 않던 소리도 들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혹여 잃어버렸던 소중한 물건 같은 것들도 찾을 수도 있게 되는 지혜도 배우게 된단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조용한 침묵(沈黙)이 큰 목소리보다 오히려 참된 가치(價値)와 위대성을 지닌 강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듯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참 진리(眞理)를 배울 수도 있는 것임에도 말입니다.

옛말에 ‘침묵(沈黙)’이란, 말을 갈고 씨앗을 뿌린 후에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沈黙)’이란 것이 긴 인내(忍耐)와 희망(希望)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각 분야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나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훌륭한 지도자는 누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섭섭해 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으며 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3년이 밖에 걸리지 않지만, ‘침묵(沈黙)’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려 60년이 걸려도 다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겸손(謙遜)을 갖춘,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침묵(沈黙)이 오히려 우리 모두가 지키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소중한 생활 덕목(德目)의 출발이 아닐까 생각되는 계묘년 새해 설날 아침입니다.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2월 21일 ~ 1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한영란	12/29	1,000,000	동해사	김진화	1/17	10,000	세곡키움센터	이지희	12/26	50,000	제석사	시범	1/16	10,000
관성사	이훈강	12/22	200,000	송인근	송인근	1/18	10,000	수인사	공재호	12/24	100,000	대인화	대인화	1/16	10,000
	보명심	1/18	10,000		법선	1/19	10,000		법상	1/18	20,000		구지원	1/3	10,000
기로스승	우인	1/19	10,000	만보사	홍도열	1/9	10,000	시범사	해광	1/13	10,000	구지영	구지영	1/3	10,000
	해정	12/22	10,000		이종구	1/11	7,000		이순영	1/13	20,000		유지호	1/10	10,000
	지희심	1/6	500,000	강명순	1/11	10,000	실보사	박현정	1/3	40,000	유선호	1/10	10,000		
	공덕성	1/19	20,000	김정희	1/19	10,000		서령	1/11	10,000	황보정미	12/25	50,000		
	상지화	1/19	10,000	김재영	12/22	10,000	실지사	해원정	1/11	10,000	나종훈	12/25	50,000		
	수종원	1/19	10,000	정정희	12/28	5,000		황성녀	12/29	10,000	백귀임	1/10	10,000		
	밀공정	1/19	10,000	반야심	1/2	10,000	유승우	1/9	10,000	최영아	1/10	10,000			
	법수원	1/19	10,000	박미경	12/26	10,000	이도현	1/9	10,000	신성희	1/10	10,000			
	선도원	1/19	10,000	인선	1/19	10,000	이루나	1/9	10,000	신현태	1/10	10,000			
	법지원	1/19	10,000	정계월	1/19	10,000	이서현	1/9	10,000	김평석	1/16	10,000			
일성혜	1/19	10,000	승원	1/19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12/26	50,000	포레스타7 어린이집	최유정	12/26	50,000		
사홍화	1/19	10,000	묘원화	1/19	10,000		양지 어린이집	정동숙	12/27		50,000	강점이	12/30	10,000	
안주화	1/19	10,000	벚롱사	이민선	1/2	80,000	운천사	반야화	1/11	30,000	화음사	무명씨	1/3	10,000	
진일심	1/19	10,000		무명씨	12/22	50,000		하재희	12/26	50,000		박옥자	1/9	10,000	
시각화	1/19	10,000		김도희	12/22	100,000	일원 어린이집	연명구	12/27	10,000	강승민	1/10	5,000		
최상관	1/19	10,000		이경동	12/26	20,000		구미자	1/2	10,000	원당	1/16	10,000		
연등원	1/19	10,000		하명순	12/26	10,000	자석사	김경희	1/20	10,000	묘심해	1/16	10,000		
자선화	1/19	10,000		강숙자	1/1	10,000		도우	1/9	10,000	힐스 어린이집	곽방은	1/10	80,000	
승효제	1/19	10,000		남영애	1/2	30,000	지현	1/9	10,000	*포항 대련리 후원금					
하현정	1/13	10,000		최영미	1/10	50,000	장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12/26	50,000	관성사	보명심	1/16	100,000	
장정숙	1/13	10,000		김지은	1/10	20,000		정각사	노점호	12/22	10,000	관성사	우인	1/16	100,000
신말심	1/13	10,000		박필남	1/13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김점남	12/28	20,000	기로스승	총지화	1/17	500,000
하현정	1/16	10,000	서이안	1/15	10,000	나석원		12/23	50,000						
장정숙	1/16	10,000	서이준	1/15	10,000	김용기	12/26	20,000							
신말심	1/16	20,000	덕화사	오선혜	1/2	10,000	안한수	1/1	10,000						
단향사	지홍	1/9		20,000	교도일동	1/18	500,000	탁성달	1/4	10,000					

생명살림
경건이야기⑮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문수보살의 원력으로 부처님의 지전을 발원하며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형제처럼 여겨지는 분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 보처 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의 이름은 문수사리(文殊師利)로 범어를 소리대로 한역한 것이며, 그 뜻은 묘길상(妙吉祥) 또는 묘덕(妙德), 묘음(妙音)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 이름니다. 모든 보살에게 서원이 있듯이 문수보살도 열 가지 서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삼계에 태어난 모든 중생은 누구든지 인연을 따라서 교화를 받아야 합니다. 각종 신들이거나 수륙(水陸)의 사생(四生)과 구류(九類)의 모든 중생들이 함께 나는 삼세(三世)에서 부처님의 지견(知見)을 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 저는 이름을 들으면 저의 법 가운데서 일체 중생이 보리심을 발하고 대승으로 돌아가 위없는 도를 닦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도할 중생이 있으면 불법의 약이 되고 세간의 의사가 되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며, 절기를 해아리는 일과 능숙한 교역과 세속의 훌륭한 문필과 훌륭한 노래와 자재한 강론의 사람을 제도하며 종류를 따라 일을 함께하면서 세상을 지도하여 보리심을 내게 하며, 바른 소견과 바른 삼매에 드는 이들이 저와의 인연으로 불도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중생은 사람만이 아니고 천상부터 지옥에 이르는 모든 중생을 말하며 신들에서부터 육지에나 물속에서 사는 포유류, 파충류, 조류, 어류, 곤충 등 모든 동물들까지 포함합니다. 우리의

뇌는 80%가 동물과 같고 나머지 20%가 다르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도 99%까지 같은 동물종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의 일부이고 지구생태계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산업사회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것도 모두 자연에서 온 것임을 생각한다면 결코 자연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자연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실사 우리 자신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 이건 자연에서 그냥 채취한 것이던 그것이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연을 우리의 소유물로 삼고 가격을 매겨 사고팔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연을 사고 팔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땅을 만들지도 강을 만들지도 바다를 만들지도 않았습니. 농부와 어부가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이 내어 준 것이지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인들이 이른바 신대륙이라는 이름으로 지배자로 나타나서는 땅에 울타리를 치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미국정부는 패배한 인디언 추장에게 땅을 팔라고 합니다. 이때 시애틀이라는 이름의 인디언 추장이 한 연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우침을 줍니다.

“이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일부일 뿐이다. 어떻게 그대는 하늘을, 땅의 따사로움을 사고 팔수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선한 공기나 반짝이는 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대는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구석구석은 우리 백성들에게 신성합니다. 저 빛나는 솔잎들이며 해변의 모래톱이며 어둠침침한 숲속의 안개며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은 우리 백성들의 추억과 경험 속에서 모두 성스러운 것들입니다. 나무줄기 속의 수액은 우리의 추억을 안고 흐릅니다.”

새해에 어떤 희망과 꿈을 설계하고 계시는지요? 문수보살은 사람을 넘어서 모든 중생이 누구든지 인연을 따라서 교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잘난이나 못난이나 모두가 인연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서 부처님이 되고자 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수보살의 첫 번째 서원입니다.

넓고 큰 자비심으로 주위를 돌아봅시다,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건강한 성인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동물이나 식물들도 함께 배려하면서 고려한 결정인지, 또 그런 결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일 이건 작은 일이건 지금부터 그렇게 해 봅시다. 문수보살의 가피로 모두 성불의 원을 세우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부산 정각사 자비회 모자가정에 나눔 손길

1월16일, 마리아모자원 방문



부산 정각사 신행 봉사단체 자비회(회장: 백일숙)가 새해부터 자비나눔의 손길을 이어갔다.

지난달 16일 백일숙 회장과 이영순 총무는 정각사 일진 정사와 함께 모자 가정 돌봄센터인 마리아모자원 해맞이빌(부산 연제구 소재)을 방문하여 회원들이 십시일반 동참한 보시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영신 원장은 “한파로 어려운 겨울나기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늘 잊지 않고 찾아 주시는 마음 잘 새겨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화자 영식 49재에 올리는 사모곡

벽룡사 김중구 각자

‘엄마~’하고 부르면 ‘왜~’하고 당장이라도 대답 해주실 것만 같은 보고 싶은 어머니.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어느덧 49일이 되어, 이렇게 무사 귀천과 명복을 빌어 드리고자 형제들과 자식들이 영전에 자리하였습니다.

1939년 인자하시고 후덕하신 외조부모님의 8남매 중 맏이로 이 세상에 나오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머니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아버지와 부부의 연을 맺어 힘겨운 시집살이와 더불어 귀히 5남매를 낳아 기르면서도 힘든 내색 한번 없이 귀회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감당하셨어야 할 여러 인연들에 대한 도리 또한 묵묵히 지켜 내오시던, 그 초연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의 생은 일일이 되짚어 보지 않아도 참 모질게도 힘겨운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준비된 삶의 여정이었고 그것이 하늘의 뜻이었다는 억지 생각으로 위로를 해보려 해도 가슴 한편에 밀려오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먹먹함은 긴 여운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주신 녹녹치 않았던 삶의 과제들을 참 잘 해내신 어머니가 귀회는 자랑스럽고 그런 어머니를 귀회와 모자의 연으로 함께 하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혹여 이번 생의 여정 중에 얻게 된 마음의 상처들이 남아 있다면 잘 기억나지 않는 지난 밤 꿈처럼 그렇게 훌훌 털어 잊으시고, 밝고 따뜻한 하늘의 꿈에서 해맑은 미소로 귀회를 지켜봐 주십시오.

어머니,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리려 합니다.

귀회 낳아 잘 길러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올리며, 따뜻하고 고왔던 어머니의 사랑은 이제 귀회 삶의 이정표가 되어 귀회의 앞날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가시는 길 편안하게 안녕히 가십시오.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서울경인교구신정회 김은숙 지회장 퇴임사

총기 52년 신년하례법회와 기로진원식에서는 삼일수행과 육행실천으로 땀방울이 맺혀, 종단과 교화발전에 앞장서온 만덕장 김은숙 서울경인교구신정회 지회장의 퇴임식도 진행됐다. 김은숙 지회장의 퇴임사와 도반으로서 오랜 세월 교도 화합과 제도에 함께 해온 부산경남교구 신정회지회 전 신인록 지회장장과 부산경남교구 신정회지회 류길자 지회장의 축하 메시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불교총지종과 함께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부산경남교구 신정회지회 전 신인록 지회장

모두의 가슴에 기억될 것입니다

김은숙 지회장님의 노고와 빛나는 업적은 우리의 자랑으로 길이길이 오랜 세월 동안 모두의 가슴에 기억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종단 발전과 지회 발전에 참으로 많은 노고 아까지 않으심에 깊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세요. 부산에서 오랜 벗 신인록 합장

저는 1987년 입교를 했습니다. 아들 셋을 두고 서울대학교를 못 보거나 하는 심정으로 옆 학부형의 권유로 종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공부를 잘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앞을 내다보고 생각하시어 삶을 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제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내내 몸도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덕이라는 것을 불공하면서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승님들 응원과 격려 덕에 큰 힘을 입어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부처님 법과 종조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따르며 자성일, 월초, 새해불공 등 저도 모르게 우리 집 보다 우리 사원 일에 더 열중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서원당에 나오면서 많은 도반과 보살들, 스승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듬뿍 받아온 기쁜 나날들이었습니다. 사원에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사랑해서 모두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늦게 지회장직을 내려놓게 된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잔직 이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나, 젊은 사람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나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수많은 행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아름다웠던 기억, 아팠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기억들을 구름처럼 버려야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순이 넘어서야 이제 제 자신을 알게 된 듯합니다.

올해 계묘년, 지금부터는 기쁨에 찬 마음으로 앞으로 여생을 정말로 마무리 잘 할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산경남교구 신정회지회 류길자 지회장

가피와 복락 받으시길 서원합니다

김은숙 지회장님. 그동안 본산 지회장으로 종령님과 통리원장님을 모시며 종단발전과 지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회장님의 업적은 길이길이 후임들의 가슴에 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는 건강 챙기시며 가피와 복락 받으시길 서원합니다. 정각사 류길자 합장

총지스캐치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가로세로 총/지/문/답

A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 through 15 indicating the starting positions for the clues.

가로 열쇠

- 1 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는 역사 기념관
2 사건이나 사도를 깨어 버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 파사00
3 옛날부터 전해 오는 관습으로 계절에 맞춰 행해지는 고유 행사와 풍습
4 돈, 귀중한 서류, 귀중품을 간수하여 보관하는데 쓰는 창고
5 각 시(市)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
6 해변이나 섬, 방파제 근처에 높게 세운 탑 모양의 구조물
7 한량없는 중생에 대해 일으키는 네 가지 마음(사무량심)
8 낙숫물이 밑으로 흐르다가 추위로 길게 얼어붙은 얼음
9 독일에서 개량된 호위견, 경찰견으로 이용되어 온 개의 한 품종
10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11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
12 지식을 모아서 정리한 책, 나무위키
13 먹는 용도의 기름으로 주로 무언가를 부치거나 튀길 때 쓰임
14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의 사자성어
15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이 가능한 능력, 00로운 사람

세로 열쇠

- 1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
2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위해 재물을 무상으로 나누는 것
3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 관세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4 닭고기 토막을 기름에 튀겨 양념소스를 끼얹어 만드는 한국식 중화요리
5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음력 1월 15일
6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
7 시가(詩歌)가 발생하여 변천해온 역사
8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하다는 뜻의 사자성어
9 독도 연안에서 잡히는 식용 새우
10 프랑스의 정치적 수도이자 왕궁이 자리했던 도시, 0000 궁전
11 뒷사람 아랫사람 사이에 지켜야할 질서가 있음을 뜻하는 삼강오륜의 하나
12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최고봉 해발고도 2,750m
13 쌀밥에 엿기름가루를 우린 물을 부어 삭힌 뒤 단맛이 나도록 만든 음료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Table listing Buddhist Association activities: Gongshik (공식불공), Jaseongil (자성일불공), Wolcho (월초불공), Saehaebong (새해불공), Chungjo-tansil (종조탄신일), Sangbani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Buchanim (부처님오신날), Habani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Haetaljeol (해탈절/우란분절), Chungjo-myeodojeol (중조멸도절), Changojeol (창교절).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Table of annual Buddhist Association activities: Saehaebong (새해불공), Sangbani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Wolcho (월초불공), Jaseongil (자성일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Table of Buddhist Association staff: President (총지회장), Vice President (부총지회장), Secretary (총서), Treasurer (총재), and various regional office staff (관공사, 단원사, 덕화사, 밀행사, 법성사, 삼일사, 성화사, 실보사, 윤천사, 일상사, 자석사, 정각사, 화음사, 동혜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과
위드다르마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 보내주신 정성 잊지 않겠습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김여진 김진화 강두희 강명순 강승민 강점이 강혜란 故이경순 공덕성 광방은관득 구미자 구지혜 길광원 길지연 길지현 김갑선
김경희 김동운 김문수 김미혜 김병관 김상림 김선희 김성찬 김예선 김옥희 김용기 김재영 김점남 김정환 김정희 김지은 김진화
김평석 나석원 남영애 노점호 도우 록경 묘심해 묘원화 묘홍 밀공정 박근진 박금화 박미경 박성호 박옥자 박정호 박필남 박현정
반야심반야화백귀임법등법상법상인법선법수원법우법지원보명심보현보심사홍화상지화서령서연희서울경인교구신정회
선도원 성주현 성화사신정 손경옥 송인근 수인사 수인회 수증원 승원 승효제 시각화 시범 신막심 신말심 신성희 신현대 안병지
안주화 안한수 양산스님 양순이 연등원 연명구 연화법 오선혜 우귀연 우인 우태경 원당 유선호 유승우 유승태 유지호 이규성
이도현 이루나 이미향 이민선 이상채 이서현 이성미 이수경 이수형 이순영 이순옥 이은별 이재은 이종구 이지희 이진성 이진승
이필연 이하영 이현직 이훈강 인선 인지심 일성혜 임지혜 자비심 자선화 장정숙 정계월 정덕순 정동숙 정순득 정우석 정희
정혜정 조성기 조영조 조창환 지현 지홍 지회심 진금선 진일심 총지화 최애 최상관 최영미 최영아 최유정 최자영 최점주 최형분
최형지 탁상달 하명순 하재희 하현정 해정 행원심 혜광 혜봉 혜원정 홍도열 홍수민 홍춘자 황갑선 황성녀 황현정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 가나다순>

공덕성 공재호 김년자 故김성민 김윤서 김종철 김희곤 남달리 박보경 반야화법공 서정구 성화사신정회 손경옥 송서아
송영근 송하나 송호영 안한수 오승헌 오채원 오현준 이연수 이영희 이인성 이태남 이태림 이해성 자선화 정법계 정재봉
정화연 주건우 총지화 한철수

<위드다르마 후원, 가나다순>